

주님의 회복 안의 네 가지 큰 기둥

(금요일—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두 번째 큰 기둥—생명

(2)

하나님의 장엄한 집에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한

생명의 사역을 지닌 생명의 흐름

성경: 겔 47:1-12, 고후 3:6, 고전 9:11, 3:6, 9, 4:15, 3:2, 12

I. 하나님의 궁극적인 움직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흐름을 체험해야 한다—겔 47:1-12.

- A. 하나님의 최종적인 움직임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생명과 본성과 요소와 본질에 있어서 그분의 온 존재로 사람을 적시어 사람을 신화하기 위한, 사람 안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이다—고후 3:18, 요일 3:2.
- B. 물은 문지방 아래서부터 흘러나온다—겔 47:1.
 - 1.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지방, 곧 출구가 있어야 한다—비교 시 81:10.
 - 2.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많이 접촉한다면, 생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게 하는 출구를 갖게 될 것이다—영한 동번 찬송가 846장.
- C. 흐름은 동쪽을 향한다—겔 47:1.
 - 1. 하나님의 강은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으로 흐른다—비교 민 2:3, 겔 43:2.
 - 2.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관심한다면, 생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요 7:18, 고전 10:31.
- D. 물은 집의 오른쪽으로부터 흘러나온다—겔 47:1.
 - 1. 성경에서 오른쪽은 가장 높은 위치, 곧 첫째 위치이다—비교 히 1:3.
 - 2. 반드시 생명의 흐름이 우리 안에서 으뜸의 위치를 가져 우리의 생활과 일에서 통제하는 요인이 되어야 한다—계 22:1, 골 1:18하.
- E. 물은 제단 옆을 지나 흘러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명의 흐름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처리와 완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겔 47:1.
- F. 생명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는 낯의 사람이신 주님께 의해 측량 받아야 한다—겔 40:3, 47:2-5, 계 1:15, 비교 요 7:37-39.
 - 1. 측량하는 것은 조사하고 검사하고 심판하고 소유하는 것이다—비교 사 6:1-8, 비교 겔 42:20.
 - 2. 완전한 단위인 천 규빗(비교 시 84:10)을 네 번 측량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점유하시고 철저히 소유하시도록,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께 철저하게 측량 받아야 함을 가리킨다—겔 47:2-5.
 - 3.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도록 우리를 조사하시고 검사하시고 심판하시게 우리가 허락해드릴수록 흐름은 더욱더 깊어진다. 흐름의 깊이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측량받았는지에 달려 있다—비교 요일 1:5, 7.

4.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축량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생명의 은혜의 흐름에 규제받고 제한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헤엄치는 강과 같으신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잠기게 되고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에 의해 떠밀려갈 것이다. 한 면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참으로 자유롭다—겔 47:4-6.

G. 강은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한다—겔 47:9상.

1. 강이 흐르는 곳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다.
2. 강의 흐름은 나무들과 물고기와 가축을 산출한다—겔 47:7, 9-10, 12.

H. 강은 사막에 물을 주고 사해(死海)를 치료한다—겔 47:8.

1. 강은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죽음의 물을 치료한다.
2. 이렇게 물을 주고 치료하는 목적은 생명을 산출하는 것이다.

I. 강은 늪 혹은 습지를 치료할 수 없다—겔 47:11.

1. 늪 혹은 습지는 중립 지대, 중간 지대, 타협과 미지근함의 지대이다—비교 계 3:15-16.
2. 생명의 흐름과 교회생활을 위해 우리는 절대적이어야 한다.
3.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다면, 어중간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회복 안에 있어야 한다. ... 주 예수님은 절대적인 것을 바라시고 요구하신다. ... 절대적으로 될 때 우리는 흐름 안에 있을 것이며, 이 흐름은 졸졸 흐르는 작은 시내가 아니라 우리가 헤엄칠 수 있는 강이 될 것이다. 이럴 때 강이 흐르는 곳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서 라이프 스타디, 339-340쪽).

II. 우리가 생명의 흐름이신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유기적인 건축물인 하나님의 장엄한 집을 위해 생명의 사역을 가진 씨 뿌리는 이, 심는 이, 물주는 이, 낚는 이, 떡이는 이, 건축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A. 충분한 자격을 갖춘 새 언약의 사역자는 다른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다—고후 3:6.

B. 생명의 사역자는 영적인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이이다.

1.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심었다면”이라고 말한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씨를 가리킨다.
2. 씨는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며, 영적인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에서부터 생명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3. 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분으로 오셔서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인류 안으로 뿌리셨다—마 13:3, 37.
4. 주님의 회복 안에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우리는 생명을 나눠주어 다른 이들 안에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산출하는, 씨 뿌리는 이가 되어야 한다.

C. 생명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 안에 심어주는 심는 이이다—고전 3:6.

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작지, 곧 하나님의 농장이다—고전 3:9.
2.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에 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 필요하다.

D. 생명의 사역자는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적서 주는 물주는 이이다—고전 3:6.

1.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에 심으면, 생명수로 그들을 적서 주어야 한다—계 22:17.
2.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 안의 물주는 이를, 농장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가 있는 관개 시설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수가 저장된 저수지가 있는 신성한 ‘관개 시설’이 되어 하나님의 농장인 교회에게 물을 주어야 한다.

3. 우리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체험을 가져야 하며 그분을 살아 있는 방식으로 접촉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생수의 통로, 곧 신성한 관개 시설이 되어 생명수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요 4:14, 7:37-39.
- E. 생명의 사역자는 낚는 이, 곧 아버지로서 자신이 낚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준다—고전 4:15.
1. 낚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줌으로써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하고 산출하는 것이다.
 2.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다른 이들 안으로 나누어주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낚을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 배아’를 가져야 한다.
- F. 생명의 사역자는 먹이는 이이다. 먹이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인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1. 마실 젖을 주거나 먹을 음식을 주는 것이 다른 이들을 먹이는 것이다—고전 3:2.
 2. 사도가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공급한 것은 지식인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아직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었고, 따라서 그것은 분명 그들에게 영양분을 주었을 것이다.
 3. 사도들의 건전한 가르침은 건강한 가르침을 생명 공급으로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그들을 양육하거나 치료한다—딤후 1:10하, 6:3, 딤후 1:13, 딤후 1:9.
- G. 생명의 사역자는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하는 건축자이다—고전 3:12.
1. 금은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의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보석들은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그 영을 상징한다(이것은 인간 본성을 상징하는 나무와 육체 안의 사람을 상징하는 풀과 생명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짚과 반대된다).
 2. 아가서는,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서, 온전하게 된 믿는 이들이 변화시키시는 영과 동역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추구자들에게 삼일 하나님을 공급함으로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들 안으로 넣어 줌으로써 그들의 미덕이 되게 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묘사한다—아 1:10-11.
 3.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도록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고전 3:12, 계 21:18-21.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췌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계시된, 자격을 갖춘 새 언약의 사역자의 여섯 가지 신분을 볼 것이다. 이 여섯 가지 신분은 씨 뿌리는 이, 심는 이, 물주는 이, 낚는 이, 먹이는 이, 건축자이다. 이 여섯 가지 신분은 생명의 문제,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누림에 관련된다.

씨 뿌리는 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심었다면”이라고 말한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씨를 가리킨다. 새 언약의 사역자, 곧 신약의 사역자는 영적인 씨를 심는다. 신약의 사역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교리적인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씨를 심는 것이다. 씨는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며, 씨를 뿌리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영적인 것들을 뿌리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분으로 오셔서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인류 안으로 뿌리셨다(3, 37절). 마찬가지로, 교회생활에 대한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다만 지식이나 교리를 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보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뿌려야 한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새 언약

의 사역자들인 우리는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씨 뿌리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씨 뿌리는 이가 되는 것은 교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설교자가 되는 훈련을 받기 위해 다만 성경 학교에 가서, 성경적인 교리들과 비유를 배우며, 또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유창하게 말하며 어떤 몸동작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면 된다. 그러나 씨 뿌리는 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 안에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산출하는 생명의 씨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러한 영적인 씨는 단순한 교리나 문자가 아니다. 그보다 영적인 씨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에 속한 것이다. 생명의 씨는 영적인 것, 곧 우리의 영 안에 있고, 우리의 영과 함께하며,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르침을 얻는 것은 쉽지만, 이러한 씨를 얻는 것은 어렵다.

심는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심었고”라고 말한다. 심는 것 또한 생명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심는 것은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인 씨를 뿌리는 것이나 땅에 풀이나 식물이나 나무를 심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성장하는 살아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작지’, 곧 하나님의 농장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작지, 곧 농장이다.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심겨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안에 심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산출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 안에 심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영적으로 심는 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다.

물주는 이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심는 이일 뿐 아니라 물주는 이어야 한다.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 안에 심으면, 생명수로 그들을 적셔 주어야 한다(계 22:17).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 안에서 물 줌이 필요한 식물들인 사랑스런 성도들에게 매일 물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 안의 물주는 이를, 농장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가 있는 관개 시설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생수가 저장된 저수지가 있는 신성한 ‘관개 시설’이 되어 하나님의 농장인 교회에게 물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생명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체험을 가져야 하며 그분을 살아 있는 방식으로 접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원천을 가질 것이고(요 4:14), 생수의 통로, 곧 신성한 관개 시설이 되어 생명수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요 7:37-39). 우리는 물주는 이, 곧 생명수로 충만하고 함께 믿는 이가 된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물을 주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생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없다면, 다른 이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낳는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았습니다.”라고 말한다. 낳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줌으로써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산출하는 것이다. 신성한 생명을 고린도의 믿는 이들 안에 나누어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낳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줌으로써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아버지들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것과 달리 낳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다른 이들 안으로 나누어주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낳을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 배아’를 가져야 한다.

먹이는 이

영적인 자녀들을 낳은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젖을 먹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먹이는 이가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이고”라고 말하였다. 먹이는 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인 가르침과 다르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먹여야 한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모유를 직접 아기에게 먹이는 것과 어머니가 가게에서 분유를 사서 아기에게 먹이는 것의 차이와 같다. 우리는 전자는 유기적이고 후자는 인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먹일 수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음식이신 그리스도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먹일 수 있도록 영적인 젖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이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다.

합당한 교회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 필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체험을 간과하기 때문에 합당한 교회생활을 실행할 수 없다.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은 아버지일 뿐 아니라 그들을 먹이는 어머니였다. 우리가 바울처럼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먹이는 영적인 젖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하고 건강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이들은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장로들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자녀들을 먹이는 영적인 젖을 만들어내는 어머니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합당한 가정생활을 가질 것이다(엡 2:19). 합당한 가정생활인 교회생활을 실행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참되게 체험하는 것이다.

건축자

씨 뿌리는 이, 심는 이, 물주는 이, 낳는 이, 먹이는 이인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결국 건축자들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최고의 건축자’이고, 다른 이들이 그 위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유일한 기초로 놓았다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12절에서 바울은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들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우리가 씨 뿌리고, 심고, 물주고, 낳고, 먹이는 일을 수행하는 동안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 안에서 자라실 것이다. 이러한 믿는 이들 안에서의 생명의 성장은 믿는 이들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변화를 동반한다. 믿는 이들은 매일 성장하면서 변화될 것이다(고후 3:18, 롬 12:2). 그들은 식물처럼 하나님의 농장에서 자라면서 변화를 체험할 것이며, 변화는 금과 은과 보석들을 산출한다. 결과적으로 믿는 이들은 다만 성숙한 식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계 14:4, 15, 골 1:28)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귀한 재료들이 될 것이다(계 21:2-3, 11, 18-22).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귀한 재료들이 되어야 한다. 금은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고,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상징하며, 보석들은 그 영의 변화시키는 일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건축자들은 건축의 재료들과 분리되지 않는다. 건축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됨으로 변화된 재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일 뿐 아니라 건축 재료이다. 우리 자신이 귀한 재료들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이 그러한 재료들로 변화되도록 도울 수 없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귀한 재료들이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변화된 재료들이 다른 믿는 이들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자격을 갖추게 한다.

변화된 재료들이 믿는 이들은 생명의 성장에서부터 나오며, 생명의 성장은 씨 뿌리고 심고 물주고 낳고 먹이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이러한 빛에 따르면,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교사나 스승이 아니라, 씨 뿌리는 이와 심는 이와 물주는 이와 낳는 이와 먹이는 이와 건축자이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았습니

다.”라고 말한다. 스승은 안내하고 지침을 주는 반면에, 아버지는 자신이 낳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다. 스승을 갖기는 쉽지만, 아버지를 갖기는 어렵다.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적다는 사실은 후자가 전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귀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주님께서 그분의 유기적인 건축물인 하나님의 집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회복 안에 씨 뿌리는 이, 심는 이, 물 주는 이, 낳는 이, 먹이는 이, 건축자가 필요하다.

영을 훈련하는 영적인 사람이 됨

지방 교회들 안에서 새 언약의 많은 사역자들이 씨 뿌리고 심고 물주고 낳고 먹이고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격을 갖춘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씨와 생수와 신성한 생명과 영적인 젖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생명에 속한 이 항목들을 받아들이는 길은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서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그런 일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라고 선포하였다.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들, 곧 믿는 이들의 뭉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받을 수 없다(고전 2:10). 반대로 영적인 것들은 혼적인 사람에게 어리석은 것이다. 예를 들어 영적인 사람들이 영을 훈련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혼적인 사람은 그들을 어리석다고 여긴다. 혼적으로 될 때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영을 훈련하지 않고서 그의 혼,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는 영적인 씨를 받을 수 없다. 우리 자신이 혼적이지 않기로 매우 어렵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에서 떨어져 있기란 매우 어렵다. 혼적인 사람은 자신을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 산다. 그러한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씨와 물과 생명과 젖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한다. 영적인 사람인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를 버리고 그들의 영을 훈련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다.’(고전 3:1, 4:10) 마찬가지로,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님을 누림

우리는 영적인 사람, 곧 영을 훈련하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 곧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풍성의 많은 항목들을 우리에게 밝혀준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 곧 우리의 과거를 위한 우리의 의와 우리의 현재를 위한 우리의 거룩하게 함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구속이시다(고전 1:24, 30). 우리는 그분께서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시고(고전 2:10), 하나님의 건축물의 유일한 기초이심을 본다(3:11). 그분은 우리의 유월절(5:7), 누룩 없는 떡(8절),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반식(10:3-4)이시다. 그분은 머리이시고(11:3), 몸이시다(12:12). 그분은 첫 열매이시고(15:20, 23), 둘째 사람이시고(47절), 마지막 아담이시다(45하절). 첫 열매와 둘째 사람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첫째이시고 둘째이시고 마지막이시다. 그러한 분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시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고전 14:45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실 수 없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위한 우리의 의, 우리의 현재를 위한 우리의 거룩하게 함,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구속이 되실 수 없다. 그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되실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따를 뿐 아니라 우리 안

에 내주하는 영적인 반석이 되실 수 있겠는가(고후 13:5)? 고린도전서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풍성의 모든 항목들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된다. 우리가 이 모든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야 했다. 그래야만 그분의 풍성의 모든 방면들이 우리의 체험에서 실질적이고 적용할 수 있고 영향력을 갖게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종교나 형식이나 가르침이나 의식이 아니다.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할수록, 우리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실 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분과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라고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온 존재는 생명 주시는 영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과 합하여 한 마음이나 한 혼이나 한 생각이 아니라 한 영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먹고 마시고 호흡함으로 그분을 누릴 수 있다(요 6:57, 7:37-39, 20:22).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그분을 먹고 마셔야 한다.

그 영이신 주님을 누리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주님을 누릴 수 있다. 고린도전서 시작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고전 1:2)라고 말하였다. ‘부르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피칼레오’이다. 이 단어는 ‘위’를 의미하는 ‘에피’와 ‘이름을 부르다’를 의미하는 ‘칼레오’로 구성된다. 다시 말하면 들을 수 있도록, 심지어 크게 부르는 것이다(행 7:59-60).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조용히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주님이 들으실 수 있게 부르는 것이다(애 3:55-56, 사 12:2-6). 우리는 “오 주 예수님!”이라고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우리가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기도하는 대신에, 들을 수 있고 심지어 크게 주님을 부르는 것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에 큰 차이점을 가져다주는 것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에 대한 헬라어 표현을 직역한 것이 “주 예수님”이다. 우리가 합당한 영으로 “주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열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며 “주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과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누리도록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우리 안으로 들이마신다.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을 누린다면 우리는 씨 뿌리는 이, 심는 이, 물주는 이, 낟는 이(아버지), 먹이는 이(어머니), 건축자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귀한 재료들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기적인 건축물, 곧 하나님의 장엄한 집으로 조성될 것이다. 이것이 합당한 교회생활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0년 1권*, 영문판, 577-583쪽)